

2일부터 총선 선거운동 돌입

1與多野 구도속 (갑) 6명 - (을) 4명 출마
'코로나19'로 후보들 '표심잡기' 묘책 고심

4·15 총선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4년간 입법부를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일정의 첫 총성이 울렸다. 이번 총선은 당 통합과 분리, 비례위성정당 창당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후보단일화' 합의 등 어느 선거 때 보다 변수가 많아졌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구로갑 선거구 6명과 구로를 선거구에 4명 등 모두 10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들은 오는 4월 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다.

<후보자 서면 인터뷰 2,3,4,5면>

<우리동네 사전투표소 6면>

(갑) 선거구(고척1~2동, 개봉1~3동,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관내 9개동 유권자 20만5,834명인 (갑) 선거구 1여다야(1與多野) 구도속 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후보(기호1)가 단수공천으로 27일 후보 등록을 마쳐 4선 도전에

나섰고, 미래통합당은 변호사 출신의 김재식 후보(기호2)가 역시 단수공천을 받아 3월5일 고척동 문화골든빌딩 4층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26일 첫 번째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정의당엔 심상정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는 이호성(기호6)후보가 고척 스카이돔구장 앞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표밭잡이에 나섰다. 우리공화당에선 중령 출신으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황인규(기호7) 후보가 오류동 이종은집 오피스텔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26일 후보등록 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또 민중당서는 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선희(기호8) 후보가 오류동 포스시티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민심 살피기에 나섰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부산대 의학박사출신의 당 지역당협의회 부위원장인 김장원(기호9) 후보가 열심히 표밭잡이에 나서고 있다.

(을) 선거구(신도림동, 구로1~5동, 가리봉동)

(을)선거구는 7개동 유권자가 14만6,711명으로 역시 1여다야(1與多野) 구도속 4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복심인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장 출신의 윤건영(기호1)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아 '코로나19' 콜센터가 있던 코리아빌딩 6층에서 고대 구로병원 사거리 현박영선 의원 사무실로 선거사무실을 옮기고 26일 후보 등록후 공약 개발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역 양천을 3선의원인 김용태(기호2) 후보가 지난 3월3일 예비후보로 등록과 함께 문헌일 예비후보가 사용하던 구로2동 구청 건너편 대신빌딩 3층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윤건영 후보의 '자객'으로 출마했다. 민심이 복심을 이긴다"며 정권심판론으로 표심잡기에 나섰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36년의 교육자 출신으로 장애인활동 보조 활동을 돕는 권영웅(기호7)후보가 후보로 등록해 나름대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전 자유한국당 구로를 당협위원장 출신의 강요식(기호8)후보가 지난 24일 구로동 세일빌딩 선거사무실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26일 후보 등록 후 "구로의 민심을 보여 주겠다"며 본격 표밭잡이에 나섰다. 그러나 강 후보는 "오는 6~7일 미래통합당 김



구로갑 더불어민주당
기호1 이인영 후보



구로갑 미래통합당
기호2 김재식 후보



구로갑 정의당
기호6 이호성 후보



구로갑 우리공화당
기호7 황인규 후보



구로갑 민중당
기호8 유선희 후보



구로갑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9 김장원 후보



구로을 더불어민주당
기호1 윤건영 후보



구로을 미래통합당
기호2 김용태 후보



구로을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7 권영웅 후보

용태 후보와 여론조사로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후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나면서 최대한 대면을 자제하면서도 이름과 얼굴은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전부터도 악수 등을 자제해왔지만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후보들은 SNS 활동을 강화하거나 방역소독 등 코로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는 4월 10~

11일 이틀간 관내 16개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본 투표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내 9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사전투표 4월 10일(금)~11일(토)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권 연령 :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모두 함께 지켜요!

- 신분증 준비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발열체크 받고 손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서면 인터뷰(갑 선거구)

기호1 이 인 영 (더불어민주당)

“구로를 지키고 구로의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 ▶나이 : 만 55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2009),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1988)
 ▶경력 : 3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현),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고려대학교 20대 총학생회장
 ▶재산 : 10억939만원
 ▶주소와 거주기간 : 2000년 20년간 구로구 거주 중. 현재는 오류동 동부골든아파트 거주
 ▶전과 유무 : 1988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 2년) 1988년 12월 21일 특별사면.
 ◇출마의 변 : 공천이 확정되었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 구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생계와 생업까지도 위태로운 말 그대로 ‘코로나19 국난’입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상대 후보와의 경쟁보다 방역 전선과 경제 전선에서 먼저 승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캐치프레이즈 :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구로를 지키고 구로의 가치를 올립니다”로 선정했습니다.
 ◇후보의 장점 : 20년간 구로와 함께하며 구로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거기다 구로구민의 지지로 여당의 중진이자 원내대표로서 성장시켜주셔서 일할 수 있는 힘도 갖추었습니다. 정치 신인이 하기 힘든 굴곡진 사업을 청와대, 관련 부처 장관, 지자체장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여차하면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 현재 오류시장 재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개발권자와 주민 간에 합의가 된다면 공공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빠른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광명 간 민자고속도로는 항동 주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뿐만 아니라, 매섭게 물어치며 질책도 마다하지 않았습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노선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의 중점 공약 : 1) 항동~온수~궁동~개봉1동~고척동을 잇는 신구로선을 신설하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신설 지하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이겠습니다. 주거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의 역세권 개발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2) 2008년 누구보다 먼저 담대한 상상력으로 꿈꿨던 ‘1호선 지하화’를 현실화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의 공동공약으로 확정해서 실행으로 돌입하겠습니다. 이미 올해 1호선 지하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철 지하화 사업 추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착공’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호2 김 재 식 (미래통합당)

“구로부터 잘 사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 ▶나이 : 만 49세
 ▶직업 : 변호사
 ▶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경력 : 법무법인 에이팩스 파트너 변호사,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전)
 ▶재산 : 7억8,905만원
 ▶주소와 거주기간 : 구로구 항동 하버라인
 ▶전과 유무 : 없음
 ◇출마의 변 : “구로부터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구로구 고척·개봉·오류·수궁·항동 지역 국회의원 후보 김재식입니다.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과거 운동권의 모습, 당당했습니다. 운동권은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또 다른 권력이 됐습니다. 기득권이 됐습니다. 조국 사태나 비례 민주당 창당과정에서 보듯 ‘내로남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력이 됐습니다. 전대협 1기 의장으로 운동권인 이인영 의원이 무려 12년을 책임졌던 우리 동네, 구로갑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서울의 변방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집값은 판 동네 보다 싸고, 학원은 옆 동네로 다니고, 마트도 판 동네로 다닙니다. 교통도 엉망입니다. ‘낙후’를 넘어 ‘쇠퇴’ 그 자체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께서는 “구로가 ‘민주당의 강남’이었는데 ‘미래통합당의 강남’과 어쩔 이리도 차이 나는지 낙후되게 만드는 게 선거전략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1970년생 저 김재식, 전문성을 갖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운동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미래로 전진시킬 합리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중앙에서 자기 정치하면서 지역을 돌보지 않는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알립니다. 대한민국을 통합해서 미래로 이끌 의지나 자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물러서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는 모두 우리 동네 구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구로에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구로에 진 빛을 지금이라도 갚아야 합니다.
 ◇선거 캐치프레이즈 : ‘구로부터 잘 살자’ ‘우리 동네 변호사’
 ◇후보의 장점 : ‘만 49세 젊은 정치인’ ‘호남아들 영남사위’ ‘19년차 변호사로서 법률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 해답 찾은 경험자’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 집값 현실화-구로 부동산 정책·행정·관계법령 전면 재검토 “구로집값 서울시 평균은 넘어야 한다” 개봉동 KBS송신소부지 개발계획 시설 및 예산 확대,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본격화, 항동 지하고속도로 건설문제 주민의견 반영된 보완대책 마련.
 ◇후보의 중점 공약 :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 입법, 유치원 의무교육 입법, 경인전철 지하화 구로구간에서 첫 착공 추진, 구로 집값 현실화, 과감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대형마트, 극장, 쇼핑몰 등 유치), 교육 인프라 확충.



기호6 이 호 성 (정의당)

“구로가 웃고 민생이 웃는 새로운 정치 해낼 것”

- ▶나이 : 52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 : (현)정의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 (현)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책특보
 ▶재산 : 3억1,343만원
 ▶주소와 거주기간 : 천왕동 6년 거주 중(구로구 20년 거주)
 ▶전과 유무 : 국가보안법 위반(군사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으로 구속·수감, 이후 사면복권되었고 민주화운동 유공자 인정)
 ◇출마의 변 : 이호성의 정치는 항상 주민을 향해 있습니다.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형교회의 예배당 예배 중단 캠페인’과 ‘주민센터·통반장 체계를 통한 마스크 공공지급’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긴급생계비 지원’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살림살이를 지키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 이호성과 정의당이 주민외면, 주민무시 구로정치를 꼭 바꾸겠습니다.



- ◇선거 캐치프레이즈 : 구로정치교체입니다. 구로구에 한 정당이 10년 넘게 집권하면서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로(갑)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역 현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구로정치, 기본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구로가 웃고 민생이 웃는 새로운 정치, 구로정치교체로 만들겠습니다.
 ◇후보의 장점 : 주민 존중과 포용력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해결 능력, 생각이 조금 달라도 함께 아우르는 포용력이 그것입니다.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 항동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자원순환센터, 오류시장 정비, 교도소 부지 토양오염, 코스트코 입점 예정, 개봉역 인근 경인선 철도소음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 긴급성을 기준으로 하면 지하고속도로, 오류시장, 경인선 철도소음 문제를 꼽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지하고속도로는 철회해야 합니다. 오류시장은 ‘현대화된 전통시장’과 ‘주민공공시설’이 포함된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삼환, 율포그레이트,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한일시멘트 부지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해 겪고 있는 소음 문제는 생태방음터널 설치로 해결하겠습니다.
 ◇후보의 중점 공약 : 저는 지금 당장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현안 해결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불평등과 불공정, 기후위기 문제가 그것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와 성범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초자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서면 인터뷰(갑 선거구)

기호7 황 인 규 (우리공화당)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안보 튼튼 책임자”

▶나이 : 만 54세

▶직업 : 기업인, 정당인(우리공화당 구로구갑 위원장)

▶학력 : 육군사관학교(전자공학, 학사 졸업) 미국 Auburn University(산업공학, 석사-박사 졸업)

▶경력 : (전)육군헬기 조종사 (전)방위사업청 근무 (전)육군 중령 (현)한백항공(주) 창업 및 경영

▶재산 : 10억8,021만원

▶주소와 거주기간 : 구로구 오류동 / 1년 미만

▶전과 유무 : 없음

◇출마의 변 : 첫째, 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구로 지역을 조기에 회생 및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내각제 채택과 사회주의 개념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음모를 저지하여, 자유민주주의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을 수호 및 발전 시키겠습니다.

◇선거 캐치프레이즈 :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주의 퇴출

◇후보의 장점 : 첫째, 미국 유학 경험 등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미국 등 우방국가 및 주변국들과의 정치, 경제적인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 가능합니다. 둘째, 중소기업(한백항공(주)) 창업 및 경영(9년 째)을 통하여 실물경제와 무역의 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셋째,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장교 복무(예 중령, 23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수 있는 책임자입니다.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 첫째, 항동 지역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공사 반대 또는 해당 아파트 지역을 우회하는 대안 모색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오류시장에 대한 공공개발 방식 적용 등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의 과거 영등포교도소 부지 토양오염 관련하여, 구로구청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기 전까지는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하게 하고, 오염토양 반출도 즉각 중지토록 해야하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해 오염토양의 정화와 반출에 대한 검증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의 중점 공약 : 첫째, 한미동맹강화와 자주 국방력 향상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둘째, 온수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산업, 방산혁신클러스터 등에 관련된 국내 및 해외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및 국가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통과하는 경인선 철도(1호선) 관련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3년 이내 완료 사업) 경인선(구로~온수) 구간 방음벽을 보강 설치하고, 추가로 경인선에 의해 갈라진 남쪽 구역과 북쪽 구역으로의 상호 교통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육교를 약 10여군데 설치 하겠습니다. 넷째, 구로구의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 각 1개씩을 설립 및 운영함으로써 산업 및 무역 전문가들을 양성하겠습니다.



기호8 유 선 희 (민중당)

“1% 특권층에 세금 부과, 99% 서민 복지 확대”

▶나이 : 만 53세

▶직업 : 정당 정치인

▶학력 : 서울대학 역사교육과 3년 중퇴

▶경력 : (전)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 민중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

▶재산 : 3억8,640만원

▶주소와 거주기간 :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68, 2동 1501호 20년

▶전과 유무 :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건

◇출마의 변 : 대한민국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근본적 이유를 제대로 찾아야 올바른 해법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로소득 때문입니다. 토지와 부동산, 주식을 독점한 1%는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불려갑니다. 일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나머지 99%는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로소득으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재벌과 1% 특권층에 세금을 부과하여 99% 서민의 복지를 확대 하겠습니다.

◇선거 캐치프레이즈 : 1% 특권층 불로소득 환수!! 99% 서민복지 확대

◇후보의 장점 : 서울대를 중퇴하고 구로공단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였고, 3번의 구속과 감옥살이에도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는 진보의 한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노동자, 서민 곁에서 진정성과 헌신으로 활동 해 온 강한 의지와 실천력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자부심입니다.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 1)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밑으로 폭약 발파, 굴착공사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해결 방안은 국토부 담당자가 주민동의 없이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주민과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주민 협의를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2) 오류시장 공공개발 : 오류시장 재정비 사업에서 지분쪼개기로 조합원 숫자를 늘린 것이 불법이라는 행정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공공개발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오류시장 재정비 사업의 혜택이 오류동 주민들과 오류시장의 상인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들면, 전통시장은 현대화 하고 도서관, 체육센터, 공원과 공공시설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방안을 검토하여 공공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의 중점 공약 : △재벌 불로소득 환수로 무상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재벌 사내보유금 환수특별법으로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자 기금' 설치 △순자산 1조이상의 상위 0.01% 슈퍼 부자에게 최대 90% 부유세 부과 △사이버 성범죄 처벌 특별법 -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및 소지 협박도 처벌.



기호9 김 장 원 (국가혁명배당금당)

“1인당 1억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나이 : 만 56세

▶직업 : 의사

▶학력 : 대학원 졸업

▶경력 : (전) 부산병원의사협회 회장

▶재산 : 14억8,212만원

▶주소와 거주기간 : 구로구 부일로 9길 127 116-601, 10년 거주

▶전과 유무 : 없음

◇출마의 변 : 지난 33년동안 환자 진료에만 전념하면서 사회 시스템의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국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파괴해지며, 후손들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 가 없어서 사회 참여의 첫 발걸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캐치프레이즈 : 국가혁명배당금당은 'NO NO YES'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NO 예산 낭비NO, 가계부채탕감 YES, 국회의원 세비 NO, 국회의원 특권 NO, 국



민배당금 지급 YES.

◇후보의 장점 : 제일 큰 장점은 오염이 전혀 안된 정치 신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는 국민들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정책을 만들어서 일관되게, 정직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허경영 총재님이 지난 30년동안 만들어 놓은 33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책임자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 구로구 갑 지역은 천왕산, 매봉산, 개웅산, 와룡산 총 4개의 아담한 구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주거단지를 이룰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1호선 지하철이 지상화 되어 있어서 남북으로 지역이 쪼개져 있고,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빌라, 주택이 조밀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포장, 공원 조성, 기반 시설 확충보다는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급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절대절명의 생계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1~2백만원 현금 또는 쿠폰가지고는 어렵도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51석 당선시 18세이상 1인당 1억원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과 매달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의 중점 공약 :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공약보다는 전체적인 당 공약인 33공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3공약의 주 요점은 예산낭비를 대폭줄이고, 세원과 국가 수입을 늘려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국가를 주식회사처럼 관리해서 효율적, 합리적, 창의적 정부조직을 만들고, 사회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국민배당금,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산층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서면 인터뷰(을 선거구)

기호1 윤 건 영(더불어민주당)

“구로역 새로운 건립에서부터 구로의 변화 약속”

- ▶나이 : 만 50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국민대학교 무역학 학사 졸업, 국민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력 : 前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前 노무현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부 기획비서관
 ▶재산 : 6억1,512만원
 ▶주소와 거주기간 : 신도림동에 거주
 ▶전과 유무 : 민주화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기타)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았고 이후 특별사면복권되었습니다.



- ◇출마의 변 : 구로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목 위에 있습니다. 지역격차를 넘어선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기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구로동 철로 안쪽 동네에 의탁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시절, 제가 어려웠을 때,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포근한 잠자리를 내어주셨던 곳이 구로입니다. 그때 받은 마음을 이제 제가 갚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구로의 발전을 위한 밑일이 되겠습니다.
- ◇선거 캐치프레이즈 : 지난 3개월 동안, 문성골과 갈갈거리부터 신도림 안동네까지 곳곳을 걸으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래의 구로에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구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나름의 해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콤플렉스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우리 구로는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이 내민 손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로는 이긴다!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바꿨습니다.
- ◇후보의 장점 :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점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와대에서의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TF, 화재안전TF 등 주요 국정과제를 해결해 본 능력과 경험이 제가 가진 큰 장점입니다. 구로를 위해 ‘큰 귀를 가진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구로주민들의 말을 제대로 듣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경기불황이 심각합니다. 정부와 보건의국의 신속대응으로 진정세를 보일 날이 멀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늦었지만,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도 통과됐습니다. 이제 감염 확대를 최대한 막고 영세자영업자들과 상인들의 경기회복과 사기진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신속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 ◇후보의 중점 공약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구로디지털단지 지역에는 신안산선이 들어서고 GTX-B노선이 신도림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7·8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구로, 2000년대 디지털밸리로 성공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구로가 또 한 번 격동기에 들어섭니다. 저는 30여 년, 그대로였던 구로역의 새로운 건립에서부터 구로의 변화를 약속드립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을 시작으로 꾸준히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문 밖 10분거리’에 도서관, 체육시설을 목표로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기호2 김 용 태(미래통합당)

“‘문재인 정권 3년 실정’ 책임 묻겠다”

- ▶나이 : 만 52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경력 : 18, 19, 20대(현) 국회의원, (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재산 : 12억8,100만원
 ▶주소와 거주기간 : 구로구 디지털로 319(구로 3동), 1개월
 ▶전과 유무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2회



- ◇출마의 변 : 구로는 20년 동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 사이 구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방치한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대 후보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문재인 정권 3년 실정의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망, 공정과 정의 말살, 국민 분열의 책임의 중심입니다. 그렇기에 당에서 저를 보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경제도, 구로도 싹 바꾸라는 것이 당의 명령이자 주민의 요구입니다. 명 받들어, 정정 당당하고 깨끗한 승부를 하겠습니다.
- ◇선거 캐치프레이즈 :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도, 구로도 싹 바꾸시다”로 정했습니다. 20년 묵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오만과 독선, 무책임을 심판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구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후보의 장점 : 저는 구로의 이웃인 양천에서 12년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국회의원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민원의 날’을 처음으로 도입해 한 달에 두 번, 198차례 3만명의 주민을 만나 1만 5천건의 민원에 답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주민들 피해를 없애기 위해 모두가 안 된다던 공사비 6천억 짜리, 지하 50m 대심도 수로터널을 만들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규정을 바꿔서 피해 가정에 방음창을 만들고, 에어컨 놔 드리고 일 년에 4개월 전기료 감면도 관철시켰습니다. 양천에서 해 낸 일, 구로에서도 저라면 할 수 있습니다. 기획력, 추진력, 돌파력을 갖춘, 일에 대해서는 검증된 프로라는 것이 저의 강점입니다.
-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 지하철 지상구간과 차량기지는 구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절망의 족쇄입니다. 옮길 수 없다면 땅에 묻던지 뚜껑을 씌워서, 그 땅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너무 묵었습니다. 용적률 올리고, 불합리한 기부채납 방식도 바뀌어서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거 환경이 좋지 않으면 교통, 환경, 문화 같은 다른 환경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에,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주민이 떠나지 않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ICT산업의 중심지인 구로는, 인근의 금융 중심지 여의도와 엮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인 핀테크 산업 발전기지로 만들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 ◇후보의 중점 공약 : 철도 지하화와 차량기지 문제 해결, 주민의 뜻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ICT와 금융을 연결한 핀테크산업 발전기지로 만들겠다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지역별 공약과 특성 공약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www.songlin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서면 인터뷰(을 선거구)

기호7 권영웅 (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으로 빈부격차 타파, 중산주의 완성”

- ▶나이 : 60세
- ▶직업 : 정당인
- ▶학력 : 경인교육대학교 졸업
- ▶경력 : (전)부천역곡초등학교 교감 명예퇴직 (현)국가혁명배당금당 서울시당 교육위원장
- ▶재산 : 3억8,593만원
- ▶주소와 거주기간 : 구로구 구로동로 47길 24 구로중앙하이츠 103동 2302호, 거주기간-신도림동(9년), 구로2동(13년)
- ▶전과 유무 : 없음



◇출마의 변 :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좌, 우파의 정권유지를 위한 패거리 정치,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불안, 흔들리는 교육, 경제정책의 실패로 중산층의 붕괴, 빈익빈부익부의 극대화, 저출산율, 자살율 등 사회 문제, 세계적으로 환경 파괴, 전쟁, 기아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정책은 빈부격차를 타파하고 중산주의를 만들며 공존공영하는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알았기에 국가혁명을 위해 이 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의 장점 :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35년 6개월 동안 성실히 지도한 경험과, 2년 가까이 강연을 통해서 33정책의 철학을 충분히 알았기에 33정책을 실현 시기인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 지금은 국민층, 서민층, 붕괴하는 중산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건설하고 개발하는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다른 일을 하면 취소하는 일이 생기는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게 하면 안됩니다. 뜻뜻하게 배당금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가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들의 빛을 탐구하고 잘살게 한 뒤에 개발할 것이 있으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시설을 하고 개발을 많이 하는 뒤에는 업자들과의 검은 거래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에 시급한 일은 점검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후보의 중점 공약 : 국민배당금 지급입니다. 18세 이상 1인당 150만원 (65세 이상 220만원),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인당 1억원, 결혼시 3억(1억+주택자금 무이자 2억), 출산시 5,000만원 지급합니다.

기호8 강요식 (무소속)

“구로 스카이라인-동네 이미지 확 바꾸겠다”

- ▶나이 : 만 58세
- ▶직업 : 정당인
- ▶학력 :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 ▶재산 : 10억2,813만원
- ▶경력 :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전)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 ▶주소와 거주기간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87, 동아1차 아파트, 2001년부터 (20년째)/ 자가
- ▶전과 유무 : 없음



◇출마의 변 : 낙후된 구로를 발전시키고, 편향된 지방독점 권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출마했다. 구로의 민심과 다르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날아온 철새들의 싸움판에서 단기 필마로 대적하여 구로 자존심을 세우고, 반드시 이기겠다. 여당도 싫고, 야당도 못 믿으시면 정답은 무소속 강요식이다.

◇선거 캐치프레이즈 : 구로 자존심을 세울 ‘자랑스런 우리구로, 살기좋은 경제특구’ ‘당보다 구로사람’은 구로표심을 자극할 것이다. 당심은 민심을 강요할 수 없고, 표심은 진짜 구로일꾼에 있다. 구로발전 시킬 진짜 일꾼을 찾아야 구로의 미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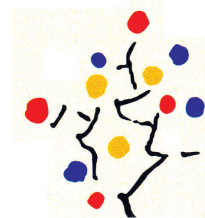
◇후보의 장점 : 오직 구로발전을 위해 10년 넘게 구로를 피와 땀으로 적었다. 자기정치를 하지 않고, 나라와 구로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는 몰입력이 강요식의 힘이다. 12권의 책을 출간하고, 3만4천명의 구독자(강요식 TV)를 가진 유튜버로서 문무를 겸비했다. 국민을 대변할 능력이 있다.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 : 지역현안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역발전은 청와대 권력자, 기득권 정치인의 위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추진력과 진성성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힘이 있다고 자랑해온 철새 정치인들이 구로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지역현안 해결방안은 철새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후보의 중점 공약 : 4D 구로뉴플랫폼(디자인, 디지털, 디벨로프먼트, 다이내믹)을 근간으로 구로의 스카이라인과 동네 이미지를 확 바꾸겠다. 숙원사업인 철도 차량기지 이전, 노후 구로역사 재정비, 서부간선지하도로 상부 친환경안전공간 조성, 각종별 맞춤형 개발과 2무(소음, 쓰레기), 3다(아이,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자랑스런 우리구로, 살기좋은 경제특구를 꼭 만들 것이다.

한국의 전통 음식점

어울림
www.eowoolim.com



한정식과 숯불구이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어울림

1. 품격이 필요한 상견례
2. 최고의 비즈니스
3. 각종 연회장소(송년회, 회갑연, 동창회, 칠순) 연회석과 29개룸 350석

구로구 공원로 41 현대파크빌 지하1층
예약 문의 02)867-9292
www.eowoolim.com



한국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곳

구로구의회 ‘코로나19 추경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30-31일 이틀... 지역경제 활성화·시설 방역 등 지원 23개 사업 총 219억원 규모 1차 추경안 심의 처리

구로구의회(의장 박철성)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임시회를 개최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임시회 첫날 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31일에는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 열어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을 심사하고, 예결위를 마치는 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91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 및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219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7개 사업에 168억 원 ▲소상공인 등 피해업체 지원에 24억 원 ▲

코로나19 방역 등 감염확산 방지 12개 사업에 7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20억 원 등 총 219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으로 편성됐다.

박철성 의장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챙기겠으며, 지원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내실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추경으로 구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김영곤, 김철수, 최숙자, 조미향, 노경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 5건 본회의 원안 가결



사진 왼쪽부터 김영곤, 김철수, 최숙자, 조미향, 노경숙 의원

구로구의회(의장 박철성)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곤, 김철수, 최숙자, 조미향, 노경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 5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구로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업무 사안이나 입법·정책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의 범위, 정원, 위촉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숙자 의원은 구로구의회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으며,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위원회 설치, 서포터즈 구성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현장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권 기자>

4월10~11일 16개洞서 사전 투표 실시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	소재지
신도림동 사전투표소	신도림동주민센터(3층, 대강당)	신도림로 40 (신도림동)
구로제1동 사전투표소	구로제1동주민센터(3층, 강당)	구일로4길 57 (구로동)
구로제2동 사전투표소	구로제2동주민센터(3층, 프로그램실)	구로동로 141 (구로동)
구로제3동 사전투표소	구로제3동주민센터(4층, 다목적실)	디지털로31길 109 (구로동)
구로제4동 사전투표소	구로제4동주민센터(3층, 강당)	구로동로28길 94 (구로동)
구로제5동 사전투표소	구로구민회관(1층, 갤러리 구루지)	가마산로25길 21(구로동)
가리봉동 사전투표소	가리봉동주민센터(1층, 회의실)	우마2길 35 (가리봉동)
고척제1동 사전투표소	고척제1동주민센터(지하1층, 프로그램실)	중앙로3길 18-8 (고척동)
고척제2동 사전투표소	고척제2동주민센터(2층, 회의실)	중앙로15길 22 (고척동)
개봉제1동 사전투표소	개봉제1동주민센터(2층, 다목적실)	경인로33길 51 (개봉동)
개봉제2동 사전투표소	개봉제2동주민센터(3층, 자치회관)	개봉로17가길 26 (개봉동)
개봉제3동 사전투표소	개봉3동자치회관(1층, 다목적실)	개봉로1가길 28 (개봉동)
오류제1동 사전투표소	오류제1동주민센터(3층, 회의실)	경인로27길 10 (오류동)
오류제2동 사전투표소	천왕역 벚들마을활력소(지하2층, 다목적강당)	오리로 1130 (천왕동)
수궁동 사전투표소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지하층, 대강당)	부일로 949 (수궁동)
항동 사전투표소	항동주민센터(3층, 회의실)	서해안로 2102 솔보프라자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4월10~11일 이틀간 관내 16개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이 기간동안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 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신용 봉투를 받게 된다. 선거인은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이를 우편봉투함에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채홍길 기자>

조규영 전 시의원, 윤건영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구로를 윤건영 후보는 지난 23일 조규영 전 예비후보(전 시의원)를 민주당 구로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지냈던 조규영 전 시의원은 구로를 지역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해 왔다. 조규영

전 시의원이 윤건영 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함에 따라 윤 후보 측 선대위도 총선 체제를 완비하게 됐다.

조규영 전 시의원의 선대위원장 합류와 관련 윤건영 후보는 “조규영 전 후보의 합류로 이제 다시 민주당은 원팀이 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성구로구청장까지 모두 민주당인 만큼, 국회의원까지 원팀이 되면 보수정부 9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왼쪽)가 지난 23일 조규영 전 예비후보를 구로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물이 많았던 구로의 발전도 진짜 눈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조규영 후보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총선 승리까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 더 뜨겁게 뛰겠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후보 선대위는 조규영 전 시의원 외에도 김한기 한국국회피스컴퓨터 대표이사, 임성주 전 애경그룹 부회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채홍길 기자>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무소속 강요식 후보 ‘단일화 경선’ 합의

4월 6일~7일 여론조사로 결정... “선출된 후보 적극 지지”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무소속 강요식 후보가 지난 3월 26일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대표 서경석 목사) 주관으로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경

선’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4월 6일, 7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8일 결과를 발표한다. 경선결과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각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하고,

선출된 후보자를 적극 지지한다”로 되어있다.

김용태 후보는 “야권 단일화는 총선 승리의 필수조건이다”며 “강요식 후보간 야권 단일화 결정은 당 지도부에 보고하여 흔쾌히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요식 후보는 “보수우파가 결집하는 좋

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하고 “보수의 승리를 위해 단일화 합의를 수용한 김용태 후보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김유권 기자>



사진 왼쪽부터 강요식 무소속 후보, 서경석 목사,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캠페인 전개

종교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세부적 행동지침 안내

30일 현재 구로관내 확진자 32명 완치자 2명

신도림 콜센터 확진자 직원·접촉자 포함 163명

구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캠페인에 나섰다.

구는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에 맞는 세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안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구로구는 관내 교회에 온라인 예배 대체를 요청하는 한편 집회 예배를 유지하는 교회에는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입장 전 발열 체크,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전·후 시설 소독, 신도 간 좌우 2m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등 7가지 예방 수칙이다.

관내 PC방과 노래연습장, 민간 체육시설 등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직원과 이용객이 상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미착용 시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 리모컨,

운동기구 등은 수시로 소독하고 1일 1회 이상 사업장 전체 방역도 실시토록 했다. 한자리 건너 앉기, 이용자 간 최소 2m 이상 유지하기 등 적정 간격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 그룹 운동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중단을 권고했다.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결재 후 손 소독하기, 개인용 앞접시 사용하기 등의 위생수칙을 홍보했다. 콜라텍에는 운영 자제를 요청해 23일 현재 관내 6개 전 업소가 휴업 중이다.

구로구는 소식지·홈페이지 게재, 현장 방문, 안내문 발송, 방역용품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홍보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활동도 펼친다. 지난 20일 구청 앞 광장을 시작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신도림역, 구로역, 개봉역, 오류동역

등에서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된다. 캠페인은 최소한의 필요 인원만으로 구성해 진행하며 참여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한편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26일 2명과 28일 4명, 그리고 29일 2명이 늘어 30일 현재 확진자 32명, 완치 2명, 자가격리자 168명, 능동감시 대상자 44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30일 기준 신도림 코리아빌딩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163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콜센터 직원 가족, 접촉자까지 포함된 수치다. 동일 건물 직원은 97명(11층 94명, 10층 2명, 9층 1명)이며 접촉자는 66명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30일 0시 현재 △누적 확진자 9,661명 △누적 사망자 158명 △누적 격리해제자 5,228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확진자는 △대구 6,624명 △경북 1,298명 △서울 426명 △경기 463명 △인천 58명 △부산 118명 △경남 95명 △울산 39명 △충남 127명 △대전 34명 △세종 46명 △충북 44명 △강원 36명 △전북 13명 △광주 20명 △전남 9명 △제주 9명. <김유권 기자>

구로 관내 확진자 32명, 완치자 2명 (30일 현재)

1번 확진자(여, 41세) 개봉2동(원치 퇴원)	17번 확진자(남, 51세) 가리봉동
2번 확진자(여, 53세) 오류1동	18번 확진자(여, 50세) 오류2동
3번 확진자(여, 51세) 구로5동	19번 확진자(남, 53세) 구로5동(3번 확진자 남편)
4번 확진자(여, 51세) 구로5동	20번 확진자(남, 8세) 신도림동(6번 확진자 아들)
5번 확진자(여, 37세) 구로5동	21번 확진자(남, 24세) 구로5동(3번 확진자 아들)
6번 확진자(여, 45세) 신도림동	22번 확진자(남, 19세) 구로2동(타구 확진자 접촉자)
7번 확진자(여, 50세) 구로5동	23번 확진자(여, 47세) 구로5동(콜센터 직원)
8번 확진자(남, 55세) 구로5동(7번 확진자 남편)	24번 확진자(여, 58세) 가리봉동(타구 확진자 접촉자)
9번 확진자(남, 22세) 구로5동(7번 확진자 아들)	25번 확진자(남, 59세) 신도림동(필리핀서 입국)
10번 확진자(여, 38세) 구로2동(원치 퇴원)	26번 확진자(남, 25세) 구로2동(미국서 입국)
11번 확진자(여, 48세) 구로2동	27번 확진자(남, 49세) 가리봉동(민민중앙교회 관련)
12번 확진자(여, 50세) 고척2동	28번 확진자(남, 44세) 가리봉동(민민중앙교회 관련)
13번 확진자(남, 41세) 개봉2동	29번 확진자(여, 47세) 구로4동(민민중앙교회 관련)
14번 확진자(여, 52세) 구로1동	30번 확진자 (여, 48세) 가리봉동(민민중앙교회 직원)
15번 확진자(남, 79세) 신도림동(6번 확진자 아버지)	31번 확진자 (남, 84세) 가리봉동(28번 확진자 가족)
16번 확진자(남, 46세) 신도림동(6번 확진자 남편)	32번 확진자 (남, 54세) 가리봉동(민민중앙교회 직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접수

구로구 ‘온라인 5부제’로 가구당 최대 50만원 지급

구로구는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국가형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http://wss.seoul.go.kr)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1·6년도생은 월요일, 2·7년

생은 화요일, 3·8년생은 수요일, 4·9년생은 목요일, 5·0년생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중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토·일요일에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우리동네 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방문해 접수를 도와준다.

4월 16일부터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역시 5부제로 운영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구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채홍길 기자>

구로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 22명 발생… 집단감염 우려

구청, 교회 폐쇄후 방역소독 완료… 접촉의심자 330명 전수조사

구로3동에 위치한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9일 만민중앙교회 신도 금천구 4남매가 한꺼번에 확진판정을 받는 등 영등포, 동작, 관악구, 광명시까지 교회 관련 확진자가 이날만 9명 확인돼 총 22명으로 늘었다.

구로구는 지난 27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를 폐쇄하고 방역을 완료했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6일 저녁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왔다.

구로 관내에서도 신규 환자 2명이 나왔다. 만민중앙교회 직원인 가리봉동 거주 48세 여성이 관내 30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 31번 환자는 가리봉동에 사는 84세 남성으로, 이 교회 직원인 44세 남성(구로구 28번)의



구로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만민교회를 폐쇄 조치후 방역소독을 마쳤다.

가족이다.

구로구는 지난 22일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한 금천구 6번째 확진자와 관련해 교회 교직자와 당일 온라인 예배 제작·중계에 참여한 관계자 등 접촉 의심자 330여명에 대한 전수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구로 만민중앙교회와 전남 무안 만민중앙교회 사이 연관성 확인에 나섰다. 지난 5일 무안 만민중앙교회에서 열린 20주

년 행사에 구로 교회 확진자와 무안 교회 확진자가 모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 본당뿐만 아니라 동작구 신대방2동에 있는 목사 사택과 그에 이웃한 교인 거주 빌라와 교회 사무실, 그리고 관련 시설인 연합성결신학교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접촉자로 분류된 인원은 약 330여명이다. <채홍길 기자>

취약계층에 마스크 50만장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돌봄기관 등 배부

아동·어르신·장애인·임산부 대상 30만장 전달

구로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50여만장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적 이유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 관내 저소득층 주민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아동돌봄기관 등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도 보급한다.

앞서 구로구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7만6790장, 어린이집 6만6740장, 저소득층 2만3600장, 돌봄·양육시설 1만장, 임산부 8,992장, 드림스타트 아동 6,200장, 장애인 3,645장 등 총 30만4630장의 마스크를 배부한 바 있다.

구로구는 보건용 마스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봉제업체를 통해 ‘필터 장착형 면 마스크’를 구매해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구로구와 2012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광서성 귀항시가 덴탈마스크 5만장을 기부기로 했다. 구는 마스크를 전달받는 대로 민원인과 마을버스 회사 등에 배분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배부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만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온라인 콘서트' 진행

30일~4월 3일 매일 오후 6시30분... 가요·클래식·마술쇼 등 다양

구로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온라인 콘서트'를 마련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문화적 공백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이 직접 제작하는 온라인 공연 '집으로 배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집으로 배달' 콘서트는 구로구 민회관에서 관객 없이 진행된다.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유튜브, 아프리카TV에서 '구로구청 방송센터' 또는 '집으로 배달 콘서트'를 검색해 접속하면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양방향 방식으로 진행돼 신청곡 접수



등 관객과의 소통도 가능하다. 공연 후에는 페이스북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공연은 이달 30일부터 4월 3일

까지 5일간 펼쳐진다.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40분간 진행되며, 유명 싱어송라이터이자 유튜버인 '미기(MIGI)'가 사회를 맡는다. 날짜별로 30일 인기가요, 31일 클래식, 4월 1일 마술쇼, 2일 뮤지컬 OST, 3일 인기가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기 위해 인기가수들의 우정출연도 예정돼있다. 최근 예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요요미, 미스터리웃 출연자 한이재, 그룹 건아들의 멤버 광종목, 가수 홍시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코로나19 예방 '꽃 나들이' 자제를"

인파 몰릴땐 감염 우려... 안양천 등에 방문 자제 현수막

구로5동 거리공원 벚꽃축제 등 대부분 봄맞이 행사 취소



구로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꽃 나들이' 자제를 당부했다. 구는 본격적인 개화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내 벚꽃 명소에 많은 상춘객의 방문이 예상돼 감염의 우려가 있어 주민들 대상으로 봄철 나들이 자제를 안내하고 있다.

구로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꽃 나들이' 자제를 당부했다.

구는 "본격적인 개화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내 벚꽃 명소에 상춘객의 방문이 예상된다"며 "인파가 몰릴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봄철 나들이 자제를 안내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구로구는 먼저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 일대 산책로와 개봉유수지, 신구로유수지 내 생태공원, 거리공원 등 관내 대표적인 나들이 장소를 중심으로 방문 자제와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현

수막을 게재했다. 또한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방역활동도 강화했다.

구는 매년 진행해온 거리공원 벚꽃축제 등 각종 봄맞이 행사도 올해는 모두 취소한 상태다.

김수영 녹색도시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운집할 경우 2m 이상 간격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워진다"며 "지치고 힘든시점이지만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올 봄에는 꽃 나들이를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기계공구상가 제15회 정기총회 개최

20일 조합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80여명 참석



국내 최대 산업용품 유통 전문상사인 구로기계공구상업단지조합 제15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0일 공구상가조합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국내 최대 산업용품 유통 전문상사인 구로동 서울구로기계공구상업단지조합(조합장 강인덕) 제15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 구로동 공구상가조합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는 김건용 총무이사 사회로 제1부 성원보고, 국민 의례, 유공자 표창, 임원 소개, 조합장 개회사, 제2부 업무 보고, 안

건 심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는 2019년도 업무보고와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안전 심의로는 ▲제14기 결산보고서(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기타의 건 등으로 진행됐다.

강인덕 조합장은 "정기총회는 지난 2월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에서 오늘 조합원들의

지분 참석 형식으로 간소하게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 구로구청장 표창

▲김유봉(부일기기 대표) ▲김유원(삼중사 대표) ▲김재영(대흥특수고무 대표) ▲유시열(유명금속 대표) ▲김애순(연지상사 대표)

◇ 입주사 업체 임직원 표창

▲장원빈(화성정수설비 차장) ▲이관우(성광기업 대표) ▲이영종(신화틀링 부장) ▲박광순(동광기기 대표) ▲전재수(동일캔버스 대표) ▲이설화(에스원텍 대리) ▲백원진(대원물산 대표) ▲이정순(마산상회 대표)

◇ 조합 모범직원·광역업체 표창 ▲주정아(경리과 차장) ▲서광필(관리과 계장) ▲임재훈(공무과 전기기사) ▲이명길(관리과) ▲한행욱(캡스택 직원) ▲이계환(ABM 실장)

◇ 감사패

▲조영선(구로구청 문화관광과) ▲배성철(구로구청 녹색도시과)

〈채홍길 기자〉

남구로상인연합회, 상인에 '코로나19 위로금' 지급

남구로상인연합회(회장 이희술 사진)는 지난 3월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으로 손님이 줄어 남구로시장 상인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라도 함께하는 차원에서 185개 점포에 10만씩 모두 1천8백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문의 010-9096-1144



언론인 개인 소장품, 遺品 기증 캠페인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전·현직 언론인의 역사를 기록하여, 저널리즘의 가치와 그 숭고한 길을 되짚어 다시 세우는 상징을 만들고자 합니다.

◇ 기증기간 : 2020년 3월 2일 ~ 4월 15일

◇ 기증품목 : 물품, 자료, 사진, 그림 등 보도물을 제외한 모든 언론관련 소장품

◇ 기증문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진흥실(02-2001-7760) ※ 4월 말 개관 예정인 '미디어 교육원'에 상설 전시 예정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